

미얀마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의 창건과 양식

주 경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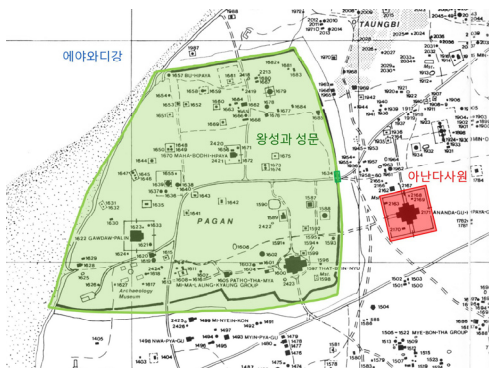
요약

미얀마 바간(Bagan) 지역에 있는 아난다(Ananda) 사원은 바간 시대의 유명한 쩌시따(Kyanzitta) 왕이 창건한 중요한 불교사원이다. 바간 왕실에서 발원하여 바간 시대 초기에 건립된 이 사원은 독특한 평면과 복잡한 회랑구조, 그리고 사원 내·외부를 가득 채운 다양한 불교조각들이 매우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아난다 사원을 건립한 쩌시따 왕의 생애와 즉위 연대, 그리고 아난다 사원의 창건 배경에 대한 문헌기록과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아난다 사원의 구조적 특징과 불교조각들의 배치 양상, 그리고 양식 및 도상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아난다 사원의 창건 연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아난다 사원의 건축 및 불전 부조의 양식적 특징은 인도에서 9-11세기에 발전했던 팔라(Pala) 시대 불교미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바간 시대 쩌시따 왕 연간의 불교문화가 상좌부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것과 관련하여, 미얀마 불교의 특징을 반영하여 혼종적이며서도 독창적인 양식을 형성하였다. 양식 및 도상적 특징으로 볼 때 아난다 사원은 쩌시따 왕의 치세 후반기인 1100년경 이후에 창건된 사원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바간, 불교사원, 쩌시따(Kyanzitta) 왕, 불전 부조, 도상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강사. stellar66@naver.com

I. 머리말



〈그림 1〉 바간 왕성과 아나다 사원 배치도.

아나다(Ananda) 사원은 미얀마 바간(Bagan) 지역의 옛 왕성의 동쪽 성문 바깥쪽에 자리한 바간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사원이다(그림 1). 이 사원은 바간 시대 초기의 짬시파(Kyansittha) 왕이 건립한 대표적인 왕실 발원 불교 사원이다. 2019년 바간 지

역이 미얀마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바간 지역의 독특한 불교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¹⁾ 아나다 사원은 바간 지역에서도 독특한 평면 구조와 건축 양식을 가진 거대한 불교사원이자, 건축물 내외부에 수천 점의 불교조각들을 가진 대표적인 사원으로, 바간 지역 불교사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이다.

아나다 사원은 1855년 바간 지역을 방문한 헨리 윌(Henry Yule, 1820-1889)에 의해서 처음으로 서양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으며(Yule 1858, 36-40), 이후 20세기 초반에 찰스 드루와젤(Charles Duroiselle, 1871-1951)이나 고든 해닝턴 루스(Gordon Hannington Luce, 1889-

1) 바간 지역의 개괄적인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미얀마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보고서(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19) 및 도날드 스타트너의 책(Stadtner 2013) 참조. 국내 연구로는 서성호(2006) 및 부산박물관(2019) 참조. 바간 시대는 버마족이 아야와디강 중류의 바간 지역에 도성을 세우고 발전한 9세기경부터 13세기경까지의 바간 왕조 시대를 뜻하는 것으로, 11세기경의 아노야타 왕과 그의 아들 짬시파 왕 때에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크게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1979) 등과 같은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연구되었다 (Duroiselle 1917, 63-97; Duroiselle 1937; 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21; Luce 1970, 358-373). 특히 찰스 드루와젤은 아난다 사원의 구조, 테라코타 부조와 명문, 석조상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의 연구가 지금도 아난다 사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아난다 사원의 불교조각들 중에서 불전 80장면에 대한 단행본이 발간되어(U Bo Kay 2016), 아난다 사원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난다 사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바간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만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서성호 2006; 2017).

아난다 사원은 1975년 바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 상당히 훼손되었으며, 2016년의 지진에도 다소 손상을 받았다. 현대의 아난다 사원 복원 사업은 2010년 인도와 미얀마 정부의 MOU 체결에 의거하여 인도 고고학조사국(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SI)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아난다 사원 복원 사업은 2019년까지 진행되어 현재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아직 사업 결과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도의 아난다 사원 복원 사업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동안 하얀 회칠로 덮여 있던 현관의 벽화 일부가 복원된 것으로(Thein 2015), 이들은 바간 시대의 귀중한 새로운 벽화 자료이다.

아난다 사원은 바간 시대 초기의 변형을 이룩한 쩌시파 왕이 창건한 대표적인 사원이자, 그 시대 불교미술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아난다 사원은 사방으로 입구가 형성된 독특한 +자형의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원의 주요 진입로가 서쪽 방향으로 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독특하다(그림 2). 아난다 사원의 독특한 십자형 평면은 이후 미얀마 불교사원 건축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아난다 사원의 형식을 모방한 사원들이 꾸준히 미얀마 전역에 제작되어 왔다. 또한 아난다 사원의



〈그림 2〉 아난다 사원의 조감도 (↑ 북쪽방향).
(@Google Map, 2019년 12월 검색)

외면과 내면에 장엄된 수많은 테라코타 부조판들과 석조 불교조각들은 바간 시대 불교미술의 도상과 양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불교미술품들이다.

바간 시대 왕실 발원 불교사원들 중 상당수가 창건에 대한 명문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과는 달리, 아난다 사원의 창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아난다 사원의 창건이 쩌시파 왕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원에서 전해오는 여러 구전 및 『유리궁 연대기(Glass Palace Chronicle)』 등 미얀마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지만, 쩌시파 왕의 재위 연대 및 배경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난다 사원의 창건 배경과 쩌시파 왕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아난다 사원의 건축 구조가 보여주는 독특한 양식적 특징과 내부에 배치된 주요 불교조각의 도상 및 양식적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난다 사원의 창건 시기와 배경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원의 창건자로 알려진 쩌시파 왕의 재위 연대에 대한 학계의 고증 과정 및 그의 불교적 제왕 사상을 살펴 본 후, 『유리궁 연대기』의 전승 및 현존하는 아난다 사원의 구조 및 양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원 창건 배경 및 건립 연대 등을 추정해보겠다.

아난다 사원에는 현재 내벽의 벽감에 약 1420점 가량의 석조 불교조각상들이 장엄되어 있으며(Duroiselle 1917, 69), 사원의 외벽에는 자타카(Jataka)와 마라의 군대 및 천인 등을 표현한 1472점의 테라코타 부조판들이 남아 있다(Duroiselle 1917, 67). 창건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조각들은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 아난다 사원에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일부 훼손으로 복원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2800여점 이상의 아난다 사원 소장의 불교조각들을 모두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들의 구체적인 양식과 제작시기 및 복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II. 바간 시대 쩐시파 왕의 불교적 제왕 사상과 아난다 사원의 창건

쩐시파 왕은 미얀마의 전통적인 불교적 제왕 사상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왕으로서, 미얀마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쩐시파 왕의 혈통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 일반적으로 쩐시파 왕은 11세기 중반 바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불교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아노야타(Anawrahta, 1044-1077 재위) 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출생 및 초기 행적, 그리고 그의 계보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미얀마의 여러 왕통사(王統史, Yazawin)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읽히는 『유리궁 연대기』에 의하면, 쩐시파는 바간의 아노야타 왕과 라카인(Rakhin) 지역에 있던 베살리(Vesali) 왕국의 공주 판차칼랴니(Pancakalyani)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 아노야타 왕이 쩐시

파를 임신한 판차칼라니 공주를 내쫓았고, 아기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위험이 있다는 예언에 의해서 공주와 아기 짚시파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을 피해 숨어서 자랐다고 한다. 그는 파레이마(Pareimma)에서 태어났으며, 티라잉(Htihtaing)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티라잉신(Htihtaingshin)”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Pe and Luce 1960, 65-67). 일설에는 짚시파가 아노야타 왕의 아들이 아니라 파레이마 지역의 나가(Naga)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짚시파의 손자인 알라우시뚜(Alaungsithu) 왕이 세운 흘레다옥 파고다(Hlèdauk Pagoda)의 명문에는 짚시파가 아노야타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Pe and Luce 1960, 68). 고든 루스는 짚시파가 다스렸던 티라잉이 만달레이 인근의 짜옥세(Kyaukse) 지역에 있던 곳이며, 이 곳이 짚시파의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한다(Luce 1966, 55).

『유리궁 연대기』에 나오는 흘레다옥 파고다는 1111년에 알라우시뚜 왕이 만달레이 지역의 냐웅곤(Nyaung-gon) 마을에 세운 탑으로, 흘레다옥 파고다의 명문은 보도파야(Bodawpaya) 왕의 석비 소장품 중에 남아 있다. 드루와젤의 연구에 의하면, 흘레다옥 파고다는 중국의 운남 지역을 정벌하고 돌아온 알라우시뚜 왕이 쉐보(Shwebo) 지역에 세운 9개의 불교사원 중 하나이다. 명문에서는 미얀마력 473년, 즉 서기 1111년에 이 탑이 세워졌다고 하여, 『유리궁 연대기』에 기록된 미얀마력 470년, 즉 서기 1098년의 기록과는 3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Duroiselle 1915, 151). 만달레이 지역의 흘레다옥 파고다는 1912년 5월 지진으로 인해서 상층부가 거의 붕괴되어 드루와젤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탑의 시카라(Sikhara) 부근에서 은으로 만든 탑형 사리장엄구와 유리제 사리기 등이 발견되었다(Duroiselle 1915, 149). 흘레다옥 파고다의 명문으로 볼 때, 짚시파와 그의 자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아노야타 왕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짠시파 왕의 계보에 대한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짠시파의 초기 행적 중에서 아버지 아노야타 왕이 2번이나 짠시파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건은 짠시파 왕의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인근의 임산부와 아이들을 모두 학살했던 사건이다(Pe and Luce 1960, 67-68). 두 번째 사건은 성인이 된 짠시파가 아버지 아노야타 왕의 인정을 받은 후, 그 아래에서 유능한 장군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났다. 당시 젊은 짠시파는 바고(Bago) 지역을 정벌하러 가면서, 바고의 왕이 아노야타 왕에게 선물로 보낸 바고의 마니산다(Manisanda)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또다시 아노야타 왕의 노여움을 받은 짠시파는 왕에게 살해당할 뻔 하다가 도망가서 살았다고 한다(Pe and Luce 1960, 92-93). 마니산다 공주와의 연애 사건으로 쫓겨난 짠시파는 아노야타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배다른 형제 솔루(Sawlu) 왕이 즉위하고 난 후에야 돌아왔으며, 솔루 왕이 죽은 후에 바간의 왕이 되었다. 『유리궁 연대기』에서는 짠시파 왕이 즉위한 해가 미안마력 426년, 즉 서기 1064년이라고 한다(Pe and Luce 1960, 105). 그러나 『유리궁 연대기』에 기록된 즉위 연대는 이후 짠시파 왕 연간에 기록된 당시의 석조 비문들이 확인되면서 잘못된 연대로 밝혀지게 된다.

짠시파 왕의 즉위 이후 바간 왕조는 국토를 크게 확장하고 번영을 누렸다. 짠시파 왕은 아노야타 왕이 후원하던 불교 승려 신 아라한(Shin Araham)의 도움을 받으며 바간의 불교문화와 미술을 발전시켰다. 『유리궁 연대기』에 의하면, 신 아라한과 짠시파 왕은 전생(前生)에서부터 서로 인연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 이전 생에서도 신 아라한은 승려였으며, 짠시파 왕은 그를 따르는 강아지였는데, 강아지가 죽었을 때에 승려가 슬퍼하여 그 뼈를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던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Pe and Luce 1960, 108). 아버지 아노야타 왕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계



〈그림 3〉 짚시파 왕 초상 조각.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서쪽
감실 하부 (사진: 주경미)

보의 논란이 있었던 짚시파 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아노야타 왕의 후원을 받던 당시의 고승 신아라한이 짚시파 왕을 지지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유리궁 연대기』에 신아라한과 짚시파 왕이 전생에서부터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음이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짚시파 왕의 치세기에 신아라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려준다.

짚시파 왕 치세기에 상좌부 불교문화가 크게 발전했던 배경에는 아노야타 왕 연간을 이어 짚시파 왕 치세기까지 활약했던 신아라한의 존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짚시파 왕이 세

운 아난다 사원의 서쪽 감실에는 신아라한과 짚시파 왕의 초상 조각이 석가모니 붓다의 발 아래에 각각 꿇어 앉아 경배를 올리는 형상으로 서로 마주보고 표현되어 있다. 아난다 사원 서쪽 감실에 표현된 짚시파 왕의 초상 조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합장한 자세로 표현되어 있는데(그림 3), 이는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짚시파 왕의 초상 조각이라고 볼 수 있다.²⁾ 아마도 짚시파 왕의 재위기에 미얀마에서 불교적 제왕 사상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도 역시 신아라한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에서 불교적 제왕 사상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 이 초상 조각은 아난다 사원의 사방불감 하단에 조각된 공양자상 8구 중에서 유일하게 세속적 인물로 표현된 것으로, 다른 7구는 모두 승려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상이 짚시파 왕이라고 전하는 것은 사원의 구전에 의한다.

짚시파 왕 연간부터이다. 짚시파 왕의 불교적 제왕 사상은 그의 재위기에 기록된 여러 불교 관계 석조(石彫) 명문(銘文, inscription)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얀마 역사에서 이러한 불교적 제왕 사상을 기록한 명문 기록의 등장은 짚시파 왕 연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짚시파 왕의 전생 인연에 대해서 기록한 바간 시대 11세기의 대표적인 명문은 바간 쉘지곤(Shwezigon) 사원 안에 세워진 두 개의 방형 석주(石柱) 명문, 타톤(Thaton) 인근의 끌라스(Kelāsa) 산 인근에서 발견된 석조 명문, 그리고 뻬에(Pyay)의 쉘산도(Shwesandaw) 사원에서 발견된 석조 명문 등 세 종류가 있다(Luce 1966, 62). 이중에서 쉘산도 명문은 1093년에 기록된 것이며, 끌라스 명문은 1098년에 기록된 것이다(Luce 1966). 쉘지곤 사원의 방형 석주 명문은 기년명이 없으나 비석의 형태나 명문의 문자체 등으로 볼 때 모두 짚시파 왕 재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³⁾ 이 세 종류의 명문은 모두 짚시파 왕의 전생 인연과 석가모니의 탄생 예언을 통해서 현재의 짚시파 왕이 불교적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상을 기록한 것으로(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20), 미얀마의 독특한 불교적 제왕 사상을 보여 주는 가장 이른 예이다. 이 명



〈그림 4〉 쉘지곤 석주 보호각. 바간 시대. 11세기 후반. 바간 쉘지곤 사원 내부 (사진: 주경미)

3) 쉘지곤 사원의 방형 석주는 쉘지곤 사원의 남쪽 입구 양쪽에 각각 세워져 있는데, 현재는 보호각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조사할 수는 없다. 다만 바간 고고학박물관과 네피도 국립박물관에 실물 크기의 복제품이 있어서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쉘지곤 사원의 방형 석주와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한 석주 2점이 바간 왕성의 동문인 타라바 게이트 앞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4점의 석주 명문의 판독과 해석은 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1920) 참조.

문들은 석가모니 붓다가 제자 아난다와 가밤파티(Gavampati)에게 미래에 비슈누(Bisnu)라는 이름의 현자가 가밤파티와 함께 스리 크세트라라는 도시를 세울 것이고, 그는 붓다의 열반으로부터 1630년이 지나서 다시 바간의 짚시파 왕으로 태어나 불교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전한다(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20, 90-129; 147-168). 이는 짚시파 왕의 전생 인연이 신 아라한뿐만 아니라, 붓다와 스리 크세트라, 가밤파티, 그리고 나가 왕 등과 이어졌으며, 이러한 인연들로 인하여 아버지로 알려진 아노야타 왕과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짚시파 왕이 바간의 불교적 제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는 불교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생으로부터의 인연과 붓다로부터의 예언을 통해서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왕의 권위를 증명하는 내용을 석조 명문 기록으로 남긴 짚시파 왕의 선례는 이후 미얀마의 여러 제왕들에게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주경미 2019, 238-251).



〈그림 5〉 마제디 석주. 바간 시대, 1113년. 바간 고고학박물관 소장 (사진: 주경미)

짚시파 왕 연간과 그 이후에 제작된 여러 석조 명문들은 바간 시대 역사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당시의 석조 명문들은 대부분 불교사원의 건립과 그 발원자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대와 인명이 기록된 예들도 있다. 당시에 새겨진 명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문은 1886-1887년경 바간의 밍가바(Myingaba) 마을 근처 마제디(Myazedi) 사원 근처에서 발견된 두 점의 방형 석주이다. 마제디 석주로 알려진 이 두 점의 석주는 짚시파 왕의 아들인 라자쿠마르

(Rajakumar) 왕자가 1113년에 세웠다. 현재 보존 상태가 좋은 석주 A는 현재 바간 고고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석주 B는 마제디 사원 앞에 복원되어 있다(그림 5).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 두 점의 방형 석주에는 사방 면에 각각 고대 미얀마어, 팔리어, 고대 몬(Mon)어, 뽀(Pyu)어 등 4종의 언어를 팔라바(Pallava) 문자와 카담바(Kadamba) 문자로 사원의 발원문을 기록해 놓았다. 두 석주의 명문 내용은 “법왕(法王, Dhammaraja) 짬시파의 부인이 죽자 그의 아들 라자쿠마르 왕자가 어머니의 소유물을 물려받았다. 즉위 28년에 왕이 병이 들자, 라자쿠마르는 왕을 위해서 금제 불상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이후 왕자는 금제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서 사원을 세워 봉헌하였다.”는 것으로, 짬시파 왕의 즉위 연대와 가계, 당시 왕실의 불교 후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19).

마제디 석주의 명문에서는 짬시파 왕의 즉위 연대가 1084년이며, 그가 1112년, 혹은 1113년까지 재위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기록은 『유리궁 연대기』에 기록된 짬시파 왕의 재위 기간과 20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후대 역사서인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준다. 『유리궁 연대기』에서는 짬시파 왕이 1064년에 즉위하여 72세인 1092년에 죽어서 손자인 알라웅시뚜가 그 뒤를 이어서 즉위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Pe and Luce 1960, 110-111). 마제디 석주 명문을 근거로, 현재 미얀마 역사학계에서는 짬시파 왕의 즉위 연대가 1084년에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짬시파 왕의 사망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루스는 짬시파 왕의 재위가 1113년까지였다고 추정하는 반면(Luce 1966), 스타가르트는 1112년까지였다고 본다(Stargardt 1970). 한편, 다른 석조 명문 중에서는 짬시파 왕이 1114년까지 재위했다고 기록된 것도 있다. 마제디 석주가 세워진 1112년까지는 짬시파 왕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서는 짚시파 왕의 재위 연대를 루스의 견해를 따라 1084년부터 1113년까지로 본다.

짚시파 왕의 재위 연대에 대한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과 현존하는 석조 명문들의 기록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리궁 연대기』가 근대기에 승려들의 시각으로 작성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며, 석가로부터의 인연을 기록한 불교적 성격의 서사가 강한 왕통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들이 바간 왕조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유리궁 연대기』에 의하면, 짚시파는 바간의 불교 왕조를 세운 아버지 아노야타 왕의 유지를 받들고 신 아라한의 도움을 받아서 상좌부 불교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하며, 신 아라한과의 관계는 아난다 사원의 조각과 구전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루와젤은 아난다 사원의 창건 연대를 구전에 의거하여 1090년이라고 보았으나, 바간 시대 불교와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루스는 아난다 사원이 짚시파 왕의 말년에 세워진 마지막 사원 중의 하나로서, 창건 연대는 110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 연구자들의 아난다 사원 창건 연대 비정이 서로 다른 것은 마제디 석주의 명문 내용을 고려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마제디 비문에서는 짚시파 왕의 즉위 연대가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보다 20년 늦은 1084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난다 사원의 창건 연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드루와젤의 견해대로 이 사원의 창건 연대가 1090년이라고 한다면, 이 사원은 짚시파의 재위 기간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건립한 사원이 되지만, 루스의 견해를 따른다면, 짚시파의 재위 후반기에 건립한 사원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난다 사원 창건 시기의 불교 사상적 배경 및 사원 자체의 건축 구조, 사원 내 불교조각의 양식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아난다 사원이 창건될 당시 불교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문헌기록과 현존 사원의 현황을 고려하여 살펴 보겠다.

Ⅲ. 아난다 사원 창건기의 독특한 불교 사상

현재 바간의 수많은 불교사원 중에서 짤시파 왕의 후원으로 건립되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사원들은 쉐지곤 파고다, 아난다 사원, 나가온(Nagayon) 사원, 아베야다나(Abeyadana) 사원, 짤시파 우민(Kyansittha Umin) 등이 있다. 또한 미얀마 남부 타톤 지역의 사원이나 빼에의 쉐산도 사원, 그리고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등도 짤시파 왕의 후원을 받아 건립 및 중창된 중요한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Luce 1970, 77-78). 짤시파 왕 연간에 대표적인 여러 사원들이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은 그의 불교적 제왕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원들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크고 복잡한 아난다 사원에는 수많은 본생도와 불전도, 불상 등이 남아 있으며, 그중에서도 석가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좌부 불교계의 여러 전승들이 다양하게 조형화되어 있다. 아마도 아난다 사원의 복잡한 구조와 수많은 조상들은 짤시파 왕 연간의 바간 왕조에서 발전한 상좌부 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복합적으로 구현해낸 대표적인 불교미술품들이라고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필자는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심도 깊은 이해가 부족하여, 이들을 모두 분석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먼저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에 나타난 아난다 사원의 창건 배경에 나타난 바간 시대의 독특한 벽지불(辟支佛, Paccekka Buddha)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아난다 사원의 벽화 복원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사원 입구의 독특한 브라흐마 상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난다 사원의 창건 관련 전승은 크게 두 종류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아난다 사원이 켄시파 왕 연간에 창건되었다는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이다. 그에 의하면, 켄시파 왕 재위기의 어느 날, 8명의 승려가 발우를 들고 왕의 궁정으로 와서 공양을 청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공양을 올린 후, 그들이 간다마다나(Gandhamadana) 산에서 온 승려들임을 알게 되어 그들이 3개월의 우기 동안 거주할 안거처로서 사원을 건립했는데 그게 바로 아난다 사원이라고 한다. 당시 아난다 사원은 간다마다나 산에 있다는 전설적인 난다물라(Nandamula) 동굴을 모방하여 세웠다고 하며, 당시의 사원 이름은 난다물라 동굴의 이름을 따라서 “난다(Nanda)”라고 하였다(Pe and Luce 1960, 110).

또 다른 전승은 미얀마에 전래되는 구전으로, 드루와젤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출처는 아마도 상좌부 불교문화의 전통에 따라 사원 자체에서 전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에 의하면, 아난다 사원은 1090년 인드라(Indra) 신이 지정해준 자리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당시 사원 기초의 깊이가 60 큐빗이며, 30 피트 규모의 깊이로 돌을 깎아서 기반을 강화했는데, 이 돌들은 인드라 신의 지시에 의해서 4천명의 약사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져왔다고 한다. 사원을 지을 때 회반죽에 사용하는 물은 불교적 세계관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메루(Meru) 산을 감싸고 있는 강에서 가져왔으며, 흙은 간다마다나 산과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조각가들은 나라(Nara) 언덕에서 불러왔으며, 400명의 건축가와 4만 명의 장인들이 사원 건축에 참여했고, 40명의 아라한들과 4천왕, 그리고 비쉬바카르마(Visvakarma)가 건축 과정을 감독했다고 한다. 또한 구전에서는 지하의 사리감실에는 붓다의 일생을 묘사한 장면들과 신들, 사람들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채웠으며, 붓다의 진신사리도 함께 봉안되었다고 한다(Duroiselle 1937, 3-4).

이상과 같이 아난다 사원의 창건과 관련된 두 가지 전승에서는 모두

아난다 사원의 창건이 쩌시파 왕 연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사원의 창건과 관련하여 그 기원이 간다마다나 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간다마다나 산은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곳이며, 실제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는 판다바 형제들이 깨달음을 위한 순례를 떠나는 곳 중 하나로 카일라사(Kailasa) 산 인근의 간다마다나 산이 중요시되고 있다(Thadani 1934, 299-300). 간다나마나 산은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여러 문헌에서 깨달음의 순례를 위한 히말라야의 성산(聖山)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된다.

팔리어 경전에서 간다나마나 산은 파체카 붓다(Pacceka Buddha)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 산 기슭에는 수바나구하(Suvanna-guha), 마니구하(Mani-guha), 라자타 구하(Rajata-guha) 등 세 개의 동굴이 있어서 파체카 붓다들이 여기에서 거주한다고 한다(Malalasekera 1937, 746-748). 파체카 붓다는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독각(獨覺), 연각(緣覺), 벽지불(辟支佛)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홀로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뜻한다. 간다마다나 산에 벽지불이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본생경』의 여러 이야기 중에도 나온다(Fausboll 1883, 453; Fausboll 1887, 16). 『본생경』 중에서 벽지불과 관련된 주요한 이야기는 제 421번째 이야기인 “이발사 강가마라(Gangamala)의 이야기”(Cowell 1897, 266-271)과 제 442번째 이야기인 “상카(Sankha) 바라문의 이야기”(Cowell 1901, 9-13) 등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벽지불은 모두 간다마다나 산에서 내려왔다.

즉, 쩌시파 왕의 아난다 사원 창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간다마다나 산에서 온 8명의 승려는 당시 바간에서 히말라야의 성지 간다마다나 산과 그 산에 거주한다는 벽지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아난다 사원의 창건 배경으로, 불교적 전생 사상과 본생담, 그리고 벽지불 사상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림 6〉 벽지불 좌상.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외측 회랑 남측벽
(사진: 주경미)

최근 태국의 불교미술사학자 폴스완은 아난다 사원 내부 회랑의 벽감에 안치된 불상 중에서 육계가 없는 독특한 도상의 불상 7점을 벽지불로 추정하였다(Poolsuwan 2016, 52-54). 이는 아난다 사원의 창건 배경에 벽지불 사상과 간다마다나 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새로운 해석이다. 폴스완의 분석에 의하면, 이 벽지불들은 모두 머리에 육계가 없이 나발만 있으며, 오른 손은 가슴에, 왼손은 다리 위에 올려놓은 도상으로 표현되었다(그림 6). 이러한 도상의 불상들은 얼핏 보

기에 불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머리 위에 육계가 없고, 발바닥에 법륜 대신 동그란 원이 새겨져 있어서 일반적인 불상의 도상과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도상의 불상은 폴스완의 견해대로 벽지불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리궁 연대기』에 기록된 아난다 사원의 창건 전승에서는 모두 8명의 벽지불이 짠시파의 왕성을 찾아왔었다고 하는데, 현재 아난다 사원에서 확인되는 벽지불상은 폴스완의 연구에 의하면 모두 7점이다. 천여 개 이상의 벽감 불상 중에서 7점이 벽지불상으로 확인된 것은 창건 전승에 나오는 8명의 벽지불과 관련된 도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난다 사원은 창건기부터 지금까지 바간 지역에서 쉼지곤 파고다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성스럽고 중요한 사원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보수 및 관리되어 왔는데, 현존하는 사원 외벽의 테라코타와 내부 벽감의 석조 조상들의 대부분은 창건기

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벽감 중에는 깨져서 보수된 상이 있거나 빈 벽감도 있고, 벽감보다 훨씬 작은 석조상들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훼손이 심한 석조상 중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것도 있으며, 일부 상들은 지진으로 떨어져서 자리가 뒤바뀌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벽감 내 석조상의 위치 변화와 후대 복원 조상들의 정확한 양상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자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7점의 벽지불상도 역시 그 수가 완전한 것이 아니거나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자리에 놓인 것일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한편, 창건기의 아난다 사원에는 내벽에 벽화를 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벽화들은 지저분하게 색이 탈락되고 변색되면서 후대 불교 신자들에 의해서 모두 흰색으로 덮여져 원래의 모습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있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인도 고고학조사국에 의해서 진행된 아난다 사원의 복원 사업 과정에서는 창건기의 벽화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벽화의 흔적들이 사방 현관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이 벽화들의 복원 과정에 대해서는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하지는 않으나, 최근 필자가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방 현관의 입구 양측 벽과 천정, 그리고 사방 현관에 있는 4개의 기둥 사방 벽과 아치형 천정 부분 등에 벽화가 그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벽화의 내용은 각종 불상 및 본생담, 장식 문양 등이 중심인데, 모든 현관의 벽화들이 복원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새로 복원된 아난다 사원의 벽화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방 현관 입구의 아치 양측 벽에 그려진 커다란 브라흐마(Brahma) 상들이다(그림 7). 사원 안으로 진입하는 모든 현관 입구 문의 양측 벽에 그려진 브라흐마 상은 모두 8구로서, 모두 아래 부분이 복원되지 않아서 자세하지는 않으나, 비례로 볼 때는 좌상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흰색으로 덧칠되어 있었고, 창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이 덧그려지면서 훼손되었음이 확인된다. 창건기에 그려진 8구의 브라흐마



〈그림 7〉 3면 2비의 브라흐마 좌상.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동쪽 현관 입구 측벽 벽화
(사진: 주경미)



〈그림 8〉 천인좌상.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서쪽
현관 입구 (사진: 주경미)

상은 모두 3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정면상은 수염이 없는 젊은 청년의 얼굴에 가깝다. 얼굴 양쪽에는 각각 지물로 추정되는 커다란 연꽃이 표현되어 있는데, 꽃의 표현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창건 당시 아난다 사원의 입구에 배치된 3면 2비의 브라흐마 좌상은 사방 문의 양쪽 입구를 바깥에서 지키는 천인좌상(그림 8)들과 함께 사원의 수호신으로 조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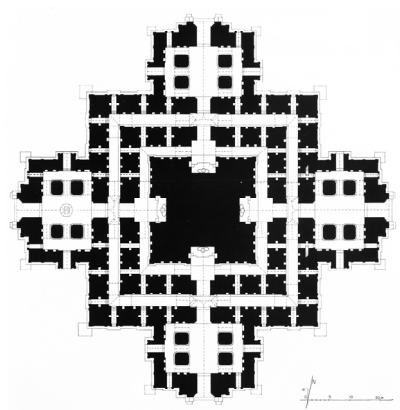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범천(梵天)으로 알려진 브라흐마는 힌두교의 신이기는 하지만, 불교의 수호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남아시아 불교계에서는 여러 명의 브라흐마들이 각각 다른 천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힌두교에서는 4면 6비, 혹은 4면 2비의 존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얀마 바간 시대 불교미술에 표현된 브라흐마들은 대부분 3면 2비로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Thein Lwin & U Min Han 2017). 이러한 다수의 브라흐마에 대한 인식과 보살상을 닮은 듯한 사원 수호존격으로서의 천인상의 조형 등은 상좌부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보살상이나 천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최근 새로 복원된 벽화

도상들의 분석에 대해서는 향후 복원 보고서의 발간 이후에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바간 아난다 사원의 구조와 양식적 특징

바간의 아난다 사원은 바간의 옛 도성 동쪽 성문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원의 원래 이름은 “난다”였으며, 지금과 같이 “아난다”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8세기경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궁 연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원의 이름이 붓다의 제자인 아난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벽지불들이 거주한다는 성산 간다마다나 산의 난다물라 동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원들을 미안마에서는 “구(gu)”, 혹은 “파토(Patho)” 형식이라고 하는데, “구”는 바로 “동굴”, 혹은 “구하(guha, grha)”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동굴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둡고 컴컴한 동굴, 혹은 심연, 혹은 만물의 기원을 상징하는 자궁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의 근원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한편, 파토는 미안마에서 내부로 들어 갈 수 있는 구조의 사원을 뜻하는데, 파토 내부에는 보통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아난다 사원의 평면도를 보면, 평면은 쐬자형, 혹은 “+”자형으로 사방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사방에 감실(龕室)이 마련된 방형의 심주(心柱)가 중심 공간이 된다(그림 9). 동서남북의 사방에는 심주의 중앙



〈그림 9〉 아난다 사원의 평면도.

감실을 향하여 입구와 현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심주의 주위에는 외진과 내진의 2중 회랑이 형성되어 있다. 각각 장방형의 구조에 4개의 기둥을 가진 사방의 현관(entrance hall)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사원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동쪽 현관의 문은 닫혀 있다. 사원 내의 모든 공간은 작은 연결 통로들을 통해서, 서로 막힌 듯하면서도 복잡하게 열린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원의 전체 길이는 89.6m이며 전체 높이는 53.9m이다. 입구에서부터 중앙의 감실까지의 길이는 한쪽 방향에서 총 38.5m 정도이며, 현관 공간은 길이 11.68m, 폭 16.83m 정도의 장방형 공간이다(Kyaw Lat 2010, 124).

중앙에 자리한 방형의 심주는 사방 길이가 25.18 x 25.20m의 크기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방형 심주의 사방면 중앙에 마련된 4개의 감실은 각각 높이 9.06m에 폭 5.48m의 크기이며(Pichard 2001, 145),⁴⁾



〈그림 10〉 카사파 붓다.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남쪽 중앙 감실과 내측 회랑 입구 전경 (사진 : 주경미)

4) 피에르 피샤의 보고서에서는 이 사원을 “아난다 구 파야지(Adanda-gu-hpaya-gyi)”라고 지칭했으며, 사원 번호의 일련번호는 2171이다.

각 감실에는 각각 대형의 불입상이 세워져 있다(그림 10). 주실(主室)이라고도 부르는 사방의 감실에 봉안된 불상은 북쪽의 카쿠산다(Kakusandha, 拘留孫) 붓다, 동쪽의 코나가마나(Konagamana, 俱那含牟尼) 붓다, 남쪽의 카사파(Kassapa, 迦葉) 붓다, 서쪽의 고타마(Gotama, 瞿曇, 즉 석가) 붓다 등으로(Duroiselle 1937, 12; Luce 1970, 358; Strachan 1996, 69), 상좌부 불교에서 숭앙되던 과거 28불 중에서 마지막 네 명에 해당하는 과거 4불이다. 『붓다밤사(Buddhavamsa)』에 의하면, 카쿠산다 붓다는 과거 28불 중 25번째, 코나가마나 붓다는 26번째, 카사파 붓다는 27번째, 고타마 붓다, 즉 석가모니는 28번째 붓다로(Horner 1975), 아난다에서는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쪽의 고타마 붓다까지 배치되어 있다. 드루와젤의 연구에 의하면, 원래 전승에서는 북, 동, 남쪽의 세 과거불들이 다른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고, 서쪽의 고타마 붓다는 5종류의 금속을 합금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동쪽과 서쪽의 불상은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새로운 목조 불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Duroiselle 1937, 12). 양식적으로 보아도, 북쪽의 카쿠산다 붓다와 남쪽의 카사파 붓다는 창건기인 바간 시대 양식을 따르는 불상이지만, 동쪽의 코나가마나 붓다와 서쪽의 고타마 붓다는 만달레이 시대의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18세기 이후에 재건된 것으로 추정된다(김미소 2019, 166). 또한 카쿠산다 붓다는 전체적인 불상 양식은 바간 시대의 양식을 보여주면서도 불상의 머리 윗부분을 비롯하여 광배 부분에 후대의 칠기 장식기법인 흐만지쉐차(Hmanzi Shweicha) 기법을 사용하여 장식하고 있으므로, 후대의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쪽의 고타마 붓다 입상 아래쪽 벽감에 째시파 왕과 신 아라한의 상이 안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세 붓다 입상 아래쪽의 벽감 양측에도 각각 무릎을 꿇고 공양을 올리는 승려 상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다. 『붓다밤사』의 내용을 고려하면, 북쪽의 카쿠산다 붓다 아래의 상은 비두라(Vidhira)와 산지바(Sanjiva), 동쪽의 코나가마나 붓다 아래의

상은 비야(Bhiyya)와 우타라(Uttara), 그리고 남쪽의 카사파 붓다 아래의 상은 티사(Tissa)와 바라드바자(Bharadvaja)로 추정된다(Luce 1970, 371). 그러나 이들의 명칭이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미얀마 불교미술에서 전통적으로 조형화되었던 아난과 가섭, 목건련과 사리불, 그리고 소나와 우타라를 조형화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드루와젤은 미얀마 불교계의 구전 전승을 따라서, 사원 아래쪽에 붓다의 진신사리와 금으로 만든 각종 불교조각들을 봉안한 사리감실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Duroiselle 1937, 3-4), 만약 이러한 사리감실이 있다면 그 위치는 중앙의 심주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앙의 심주를 중심으로 사방에 불입상을 봉안하고, 그 주위를 따라서 방형 평면의 회랑을 2층으로 구성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북위 시대 중국의 중심주 석굴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한편, 중심주 아래에 사리를 봉안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사리와 함께 붓다의 일생을 조형화한 여러 가지 불교조각들을 봉안했다고 하는 아난사 사원의 전승은 『마하밤사(Mahavamsa)』에 나오는 스리랑카 지역의 유명한 두타가마니 왕이 기원전 1세기경에 건립했다고 하는 마하투파(Mahathupa) 대탑의 사리감실 기록과 유사하다(Geiger 1950, 198-219; 주경미 2017, 64-65). 이는 바간 시대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라기보다는 붓다의 사리를 수호하는 고대 불교문화권의 불교적 제왕 사상(주경미 2009)과 그 전승의 영향을 받으며 변형된 전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아난다 사원 내부의 사리감실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난다 사원이 붓다의 사리를 모신 탑의 성격을 가진 건축물인지, 아니면 과거 4불을 봉안한 일반적인 불교사원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내부의 구조가 중심주를 중심으로 사방에 미로 같은 회랑과 감실이 배치된 것과는 달리, 아난다 사원의 외관은 방형의 층단으로 이루어진



〈그림 11〉 아난다 사원 외관 전경. 바간 시대. 12세기 초 (사진: 주경미)

거대한 산과 같은 형상이다(그림 11). 흰색으로 칠해진 외벽 위에는 3층으로 넓은 테라스가 형성되어 있고, 각 면의 중앙에는 아치형의 창문이 있다. 이 3층의 테라스는 위쪽에 타원형의 장식이 돌려져 있고, 2층과 3층 테라스의 측면 하부에는 방형의 회녹색, 혹은 청록색의 유약을 입힌 테라코타 장식판들이 장식되어 있다. 하단의 1-3층 테라스 사방 모서리에는 탑 모양의 장식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1층과 2층 테라스 사방에는 평면 원형 평면의 복발탑 형태가 장식되어 있고, 3층 테라스 사방에는 중앙과 같이 방형 기단 위에 작은 황금색 시카라를 얹은 탑형 장식이 놓여 있다. 복발탑 앞에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으며, 시카라가 있는 3층 코너 부분에는 천인좌상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2).

3층 테라스 위쪽에는 다시 좀 더 좁고 가파른 테라스 3층이 더 올려져있어서, 외면에서 보이는 테라스는 모두 6층이다. 그중에서 상부의 4, 5, 6층 테라스는 평면이 쐐기형으로 돌출한 형태이며, 역시 측면에 방형의 테라코타 장식판들이 돌아가며 장식되어 있다. 상단의 4-6층 테라스의 사방 모서리에는 탑형 장식 대신 사자만 조형되어 있다. 6층



〈그림 12〉 테라코타 장식판 전경.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외벽 테라스 2층-6층
(사진: 주경미)

의 위에는 다시 2차형 평면의 석조 기단을 한 단 올리고, 그 위의 중앙에는 황금색의 높고 커다란 시카라가 놓여 있다. 중앙 시카라의 사방 측면에는 각각 불상을 봉안한 5단의 벽감이 있다. 시카라 위에는 원추형의 가늘고 긴 탑형 상륜부 장식이 올려져있다. 이러한 시카라 구조를 가진 사원 건축은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의 형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형식이 미얀마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구조인지, 아니면 인도로부터의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외벽에 장식된 테라코타 장식판들은 방형의 부조들로서, 외벽의 기단부 하단, 2, 3, 4, 5, 6층의 테라스 하부 등을 돌아가며 장식하고 있다(그림 12). 드루와젤은 아난다 사원 외벽의 테라코타 장식판이 모두 1472점인데, 대부분의 장식판에는 문어로 새겨진 명문이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Duroiselle 1917; 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21). 그에 의하면, 외벽 기단부 하단의 부조들은 마왕 마라의

군대들과 하늘의 천인들을 표현한 것이고, 테라스 부분의 부조들은 본생담을 새겨 놓았다. 아난다 사원의 외벽을 장엄하는 본생담은 547종의 본생담들을 표현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마지막 10종 자타카, 즉 『마하니파타(Maha Nipata)』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30-40장면으로 나누어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Duroiselle 1917). 이 테라코타 장식판들은 창건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명문을 새긴 본생담의 테라코타 장식판으로 건축물을 장식하는 것은 몬 양식 건축물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Stadtner 2011).

아난다 사원의 건축 양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뽀 시대의 건축 양식의 영향이라는 설과 인도 마하보디 사원의 건축 양식의 영향이라는 설,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하르푸르(Paharpur)의 소마푸라(Somapura) 유적의 영향이라는 설 등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필자는 아난다 사원의 건축 양식이 이 모든 양식의 종합이면서 동시에 바간 시대 특유의 불교문화를 반영하여 변형된 바간 시대의 독자적 양식으로 해석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아난다 사원의 기본 구조인 ㄷ자형, 혹은 +자형의 평면이 강조된 불교사원 건축 구조는 간다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인도 지역과 네팔 지역에서는 8-9세기경부터 이런 평면을 가진 불교사원과 불탑이 많아진다.⁵⁾ 미얀마에서 방형 평면 구조의 사방에 문이 열리고, 내부에 불상으로 장식된 방형 심주가 설치된 건축 구조는 뽀 시대의 불교사원인 레미예뜨나(Lemyethna) 사원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그림 13). 레미예뜨나 사원의 내부에는 중앙의 심주 사방 면에 각각 석판에 조각한 석조불 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아난다 사원의 선행 형식으로 볼 수 있다.

5) 중앙아시아 지역과 인도에서 ㄷ자형 평면의 불탑이 등장하는 것은 4-5세기 이후부터이다. 인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ㄷ자형, 혹은 +형 평면 기단 불탑에 대해서는 Jorinde Ebert(1994) 연구를 참조.



〈그림 13〉 레미예뜨나 사원. 뷔
시대. 8-10세기. 미얀마 스리
크세트라 (사진: 주경미)



〈그림 14〉 소마푸라 사원 전경. 팔라 시대.
9-11세기. 방글라데시 파하르푸르
(사진: 유네스코)

그러나 아난다 사원의 복잡한 내·외진 회랑 구조와 고층의 테라스와 시카라 형식과 같은 구조는 뷔 시대의 건축 구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는 동인도의 팔라 시대 불교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불탑 사방 모서리에 작은 불탑을 세워 장엄하거나, 테라코타 장식판으로 건물 기반부를 장엄한 건축물은 9-10세기 팔라 시대에 증진된 인도 날란다 사원의 건축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주경미 2005, 134-137). 팔라 시대에 건립된 방글라데시 파하르푸르의 소마푸라(Somapura) 사원 유적도 역시 같은 계열의 亞자형 평면의 층단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그림 14). 소마푸라나 날란다 사원은 현재 상부 구조가 남아 있지 않지만, 소마푸라 사원의 경우에는 위쪽에 시카라와 유사한 형태의 좁고 긴 타원형 구조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마푸라 사원은 팔라 시대의 다르마팔라 왕이 창건한 사원으로 9-11세기에 크게 번영했던 불교사원이다.⁶⁾ 소마푸라 사원의 구조는 그동안 티베트 불교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왔으나, 앞으로는 미얀마 바간 시대의 아난다 사원과의 면밀하게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소마푸라 사원은 방글라데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교 유적으로, 20세기 초반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복원 정비가 완료되었다.

V. 아난다 사원의 불교조각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

아난다 사원의 외벽에는 본생담을 중심으로 하는 테라코타 부조를 장엄했지만, 내부에는 석조 부조들을 봉안하였다. 내부의 석조 부조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된 벽감에 한 점씩 봉안되어 있는데, 벽감의 배치는 완벽한 대칭성을 기본 원리로 삼았던 아난다 사원 건축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원의 내부 구조는 매우 대칭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점이 특징이며, 이 구조 안에 각종 불교조각들의 도상적 특징과 배치 방식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난다 사원의 도상 배치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벽감의 설치 장소이다. 아난다 사원에서 벽감은 사방 입구에 마련된 장방형의 현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과거 4불을 모신 중앙의 방형 심주 주위를 돌아가며 형성된 내진과 외진의 2중 회랑 양측 벽에 마련되어 있다. 각 현관 부분에는 16개의 벽감이 있고, 내·외진의 회랑에는 내벽과 외벽에 모두 규칙적인 간격으로 벽감이 뚫려 있다. 외진의 외벽에는 사방면에 각각 10개씩 2단의 감이 있어서 총 80개의 벽감이 뚫려 있고, 맞은편의 내벽에도 비슷한 간격으로 여러 단의 벽감들이 뚫려 있다(그림 9, 그림 15). 내·외진을 연결하는 통로 사이를 비롯하여, 내·외진의 내벽과 외벽 상층부에는 여러 개의 작은 벽감들이 뚫려 있다. 일부 벽감은 비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벽감에는 모두 석조 불교조각상들이 봉안되어 있고, 이들은 일부 보수되기



〈그림 15〉. 아난다 사원 외진 회랑 전경. 바간 시대.
향좌측: 외벽. 향우측: 내벽 (사진: 주경미)

도 했지만 대부분 창건기인 바간 시대의 불교조각 양식을 보여준다.

루스의 연구에 의하면 아난다 사원 내부에 배치된 불교조각들은 배치 장소와 내용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Luce 1970). 첫 번째는 사방 입구의 현관에 있는 벽감에 봉안된 16장면의 불전 부조, 두 번째는 회랑 외진의 외벽을 따라서 2단으로 조성된 80개의 벽감에 배치된 80장면의 불전 부조, 그리고 세 번째는 내·외진의 내벽을 비롯한 기타 벽감에 봉안된 봉헌용 부조, 그리고 마지막은 내·외진의 연결 통로에 자리한 벽감의 부조 등이다.

먼저 입구의 장방형 현관 공간은 입구의 왼쪽 벽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총 16개의 벽감이 조성되어 있다. 각 벽감의 부조들은 사방 현관에 모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도상의 부조들을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루스의 견해에 의하면,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도상들이 ①쉬라바스티(Sravasti)의 천불화현, ②범천 권칭, ③파



〈그림 16〉 아난다 사원 서쪽 현관 벽감 전경. 바간 시대. 향좌측: 탄생 장면. 향우측: 열반 장면 (사진: 주경미)

릴리야카(Parileyyaka) 숲의 선정, ④도솔천 강하, ⑤탄생, ⑥열반, ⑦초전법륜, ⑧보리수하 정각, ⑨선정불, ⑩보궁처, ⑪마야 부인의 태몽, ⑫불입상, ⑬유행불, ⑭수자타의 공양, ⑮설법인 불좌상, ⑯빔비사라 왕의 봉헌 등을 조형하여 배치한 것이다(Luce 1970, 366). 이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팔상(八相) 장면을 포함하여, 붓다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16장면을 조형화한 것이다. 각 현관의 불전 부조 배치가 모두 같지는 않으나, 네 현관 모두 입구 왼쪽 벽 구석에 항상 탄생과 열반 장면이 나란히 조형되어 있고(그림 16), 열반 장면의 반대편 벽감에 마야부인의 태몽 장면이 배치되어 있는 점은 공통된 특징이다. 이는 탄생과 열반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관에서 중앙 감실 쪽을 바라보면 입구 양측에 보살입상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그림 17). 동쪽, 북쪽, 남쪽의 현관에는 네 기둥 사이의 공간에 아무 것도 없지만, 서쪽 현관의 중앙에는 대형의 불족적(佛足跡)이 봉안되어 있다. 각 현관의 기둥 벽면에 그려졌던 창건기의 벽화들은 최근 일부 복원되기는 했으나, 모든 벽화가 복원된 것은 아니다. 벽화에 그려진 것은 본생도와 불상, 장식 문양 등이 확인된다.



〈그림 17〉 아난다 사원 동쪽 현관에서 중앙 감실을 바라본 모습. 바간 시대 (사진: 주경미)

외진 회랑의 외벽에 배치된 벽감은 각 면마다 중앙의 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5개씩 2단으로 벽감을 배치하여, 한 면에 20개씩 총 80개의 벽감이 배치되어 있다. 이 외진 외벽의 벽감 80개에 봉안된 부조는 석가 모니 붓다의 일생을 표현한 불전 부조이다(U Bo Kay 2016). 이 불전 부조의 내용은 상좌부 불교에서 널리 읽히던 붓다의 일생을 기록한 본생담 앞부분의 서장에 해당하는 경전 『니다나카타(Nidanakatha)』에 의거해서 조형화되었다고 한다(Luce 1970, 367; Stadtner 2013, 108). 외진 회랑의 부조는 붓다의 일생 모두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도솔천에서부터 시작하여 정각까지의 장면, 즉 보살에서 붓다로 가는 깨달음의 여정만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각 벽감의 크기는 평균 폭 56cm, 높이 102cm 정도이며, 부조들은 모두 붉은색 바탕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 불전 부조 80점 세트는 미얀마 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 지역의 불전 부조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진 회랑의 불전 부조는 서쪽 입구에서 들어와서 향좌측의 외벽 하단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불전의 내용을 조형화했다. 이 80장면을 순서대로 모두 보려면 하단 1회 40장면과 상단 1회 40장면 등 외진 회랑을 따라 총 2회를 돌아야 한다.

80점의 불전 부조 내용은 도솔천의 석가보살로 시작하여, 보리수 아래에서 붓다의 정각으로 마무리된다.⁷⁾ 도솔천의 석가보살이나 숲도다나 왕의 부조 등에서 보이는 유희좌의 자세와 육감적인 신체 표현 등은 인도 팔라 시대 9-10세기경 불교조각 양식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보인다(그림 18). 그러나 일련의 불좌상에서 보이는 얼굴의 표현 양식이나 옷 주름 표현 등은 인도와는 달라진 미얀마 불교미술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80점의 불전 부조 중에서 도상적으로도 양식적으로도 가장 주목되

7) 80점의 불전 부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는 U Bo Kay(2016) 참조.



〈그림 18〉 도솔천의 석가보살.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외진 회랑 외측 부조 (사진:
주경미)



〈그림 19〉 석가의 탄생.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외진 회랑 외측
부조 (사진: 주경미)

는 것은 2번째 부조부터 12번째 부조까지 마야 부인과 관련된 일련의 불전 부조들이다. 일반적인 불교문화권에서 석가모니 붓다의 불전을 표현할 때에 마야 부인이 등장하는 것은 태몽과 붓다의 탄생 장면 정도 뿐이다(그림 19). 그러나 아난다 사원에서는 잠자는 마야 부인, 사천왕이 호위하는 마야 부인, 천녀들이 공양을 올리는 마야 부인, 붓다를 임신한 마야 부인의 독존상,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마야 부인 등과 같이 (U Bo Kay 2016, 16-27)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고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마야 부인이 여러 장면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아난다 사원에서 붓다의 탄생 장면은 두 명의 서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되는데, 중앙의 여성이 마야 부인이고, 그 옆에서 마야 부인을 지지하고 서 있는 여성은 마야 부인의 누이동생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19). 흥미로운 것은 팔리어 경전인 『니다나카타』의 탄생 장면에서 마

야 부인의 누이동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Galloway 2004, 160-161). 이러한 여인상의 표현이나 자세는 인도 팔라 시대의 탄생 장면에서 표현된 마야 부인의 조형성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팔라 시대의 탄생 장면에서는 마야 부인과 거의 동등한 크기로 표현된 누이동생의 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난다 사원의 불전 부조에 표현된 두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탄생 장면의 도상은 바간 시대의 독특한 불교도상으로서, 이후 바간 시대의 불교미술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마야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른 부조 도상들은 바간의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아난다 사원의 독특한 도상과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아난다 사원의 불전 부조들은 인물의 표현이나 조각 양식 등에서 인도 팔라 시대 불교조각 양식의 영향을 보여주는 하지만, 건물이나 대좌 등 세부적 표현에서는 미얀마 문화 양식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마야 부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독특한 도상과 같은 예가 많은 점은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의 불전 부조가 갖는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아난다 사원의 불전 부조에서 확인되는 마야 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부조들이나 출가할 때에 칼을 들고 머리를 자르는 싯다르타 태자의 삭발 장면 등은 바간 시대 불전 부조의 매우 독특한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0). 이러한 도상들은 양식적 측면에서는 9-11세기경 인도 팔라 시대 불교미술 양식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도, 도상적 측면에서는 팔라 시대의 밀교적 도상들과는 달리 석가모니 붓다의 불전 부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짚시파 왕은 11세기 말에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으로 사 람을 보내어 사원을 중수했다고 알려져 있다(Luce 1970, 62-63). 아마도 당시 인도의 사원 순례를 다녀왔던 바간의 승려와 장인들은 보드가야와 인근 지역에서 성행했던 팔라 시대의 다양한 밀교 존상들을 직접 보



〈그림 20〉 머리를 자르는 싯다르타
태자.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
외진 회랑 외측 부조 (사진: 주경미)



〈그림 21〉 칼을 든 문수보살상. 인도
팔라 시대. 인도 비크라마실라 박물관
소장 (사진: 주경미)

고 귀국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노야타 왕 이후 상좌부 불교를 중시했던 바간 왕조에서 그러한 새로운 도상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 팔라 시대의 타라(Tara)나 반야바라밀과 같은 여성 존격이나, 혹은 칼을 든 문수보살상(그림 21)과 같은 밀교계 존상들의 독특한 조형성에 대한 인식이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의 조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팔라 시대의 밀교 존상들은 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간 시대 불교미술 양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생 및 마야 부인의 도상이나 싯다르타 태자의 삭발과 같이 바간 시대의 독특한 불교미술 도상과 양식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 팔라 시대 불교미술과 아난다 사원의 불전 부조 사이에 보이는 양식적 상관성은, 아난다 사원의 부조 양식이 팔라 시대 불교미술을 접하고 난 직후에 만들어진 초기 양식이

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난다 사원의 불전 부조들은 대부분 9-11세기경 인도 팔라 시대 불교조각 양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미얀마 바간 시대 문화가 반영되어 혼종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짬시파 왕이 인도의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을 중수하러 보냈던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국내 정치적 상황이 안정된 이후인 그의 치세 후반기일 가능성이 크다. 아난다 사원 불전 부조들의 도상과 양식에서 보이는 독특한 특징들은 인도 보드가야에 보냈던 사절단의 귀환 이후에 형성된 바간 불교 미술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난다 사원의 창건은 짬시파 왕의 치세 초기인 1090년보다는 그의 치세 후반기인 1100년 이후의 어느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난다 사원의 외진 내벽과 내진 내·외벽 벽감에 봉안된 불상들은 대부분 비슷한 도상과 양식의 불상들인데, 내진과 외진의 내벽은 모두 여러 단으로 벽감들이 조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불상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들은 대부분 향마촉지인 불좌상, 설법인 불좌상 등이 중심으로, 봉헌용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근 몇몇 벽감의 불상들 중에서 벽지불상으로 추정되는 존상이 7점 확인된 것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봉헌용 불상의 배치나 도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각 벽감 간의 도상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거나, 내진과 외진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 부분의 벽감들에 안치된 불상들의 특징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내외진과 연결 통로의 벽감 불상들은 약 천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바간 시대 짬시파 왕이 창건한 아난다 사원의 창건 배경, 건축 구조 및 불교조각의 배치, 도상적 특징과 양식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찰하였다. 아난다 사원은 지금도 바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성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미얀마의 불교 신자들이 순례하는 대표적인 사원이다. 그러나 이 사원의 창건 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축 및 불교조각의 양식적 특징들을 좀 더 면밀하게 비교 연구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아난다 사원의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이 사원의 창건이 짬시파 왕의 재위 후반기에 해당하는 1100년 이후인 12세기 초반 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바간 왕조 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아난다 사원의 건축과 조각 양식은 짬시파 왕 치세 후반기의 미얀마와 인도 팔라 왕조의 불교문화 교류와 영향 관계를 보여주면서도, 당시 미얀마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독특한 바간 시대의 불교미술 및 문화 양식을 대표한다.

중국의 『송사(宋史)』 권 489에 의하면 1106년 미얀마 바간의 왕이 송나라 휘종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데,⁸⁾ 이 기록에 나오는 왕은 아난다 사원을 건립한 짬시파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짬시파 왕이 송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시기는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 사신을 보냈던 것보다는 늦은 시기의 일로서, 이 시기 즈음에는 아난다 사원의 건립이 어느 정도 완료되거나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송사』에서 바간 왕조에 대하여 짬시파 왕 연간의 짧은 교류만을 기록한 점으로 볼 때, 그 이후 바간 왕조와 중국 송나라의 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짬시파 왕과 그 이후 바간 왕조의 왕들이 독실하면서도 독특한 상좌부 불교 사상과 불교적 제왕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

8) “蒲甘國 崇寧五年 遣使入貢.” 『宋史』 권 489, 『外國傳』 5.

문에, 미얀마인 스스로가 중국보다는 오히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나 주요 불교 국가였던 스리랑카와의 교류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바간의 사신이 다녀간 이듬해인 1107년부터 송나라의 휘종은 불교보다 도교를 중시하는 도교 우위 정책을 펼쳤는데(주경미 2010, 57-58), 이러한 중국 황실의 종교 정책 변화도 두 나라의 상호 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짚시파 왕에 의해 12세기 초반 경 건립된 아난다 사원은 이후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되기는 했으나, 최근 인도와 미얀마 정부의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복원 사업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향후 복원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된다면 아난다 사원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바간 시대 초기 불교건축과 조각을 대표하는 아난다 사원의 미술사적 연구는 인도와 미얀마의 불교미술 양식과 도상학적 비교 분석, 그리고 국제 교류사 등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바간 시대 불교적 제왕으로서의 짚시파 왕의 위상과 그의 위상을 대표하는 불교사원으로서의 아난다 사원의 성격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아난다 사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충해나가고자 한다.

투 고 일: 2019년 12월 25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12일

참고문헌

『宋史』.

국립광주박물관. 2015. 『아시아의 불교미술 -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김달진 역. 1995. 『한글대장경 本生經』 전 5권. 중판.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김미소. 2019. “꼰바웅 왕조와 만달레이 양식의 불상.”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162-167.

박장식 엮음. 2015. 『동남아 문화 이야기』. 서울: 솔과학.

부산박물관. 2019.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불교평론 편집실 편. 2018. 『동남아불교사』. 서울: 인북스.

서성호. 2006. 『바간 인 미얀마』. 서울: 두르가.

_____. 2017. 『골든미얀마』. 서울: 두르가.

염승훈·천득염·김소영. 2016. “버강 시기 불탑의 형식적 특성과 분류.” 『건축역사연구』 25(5): 75-86.

주경미. 2005. “날란다의 불교유적과 구법승.” 『미술사와 시각문화』 4: 134-137.

_____. 2009. “고대 국왕의 진신사리 공양과 정치적 함의.” 『인문사회과학연구』 10(2): 17-50.

_____. 2010. “남송대 정치 변동과 불사리장엄.” 『미술사와 시각문화』 9: 54-85.

_____. 2015. “불교 성지 순례의 재현과 미얀마 버강의 마하보디 사원.” 박장식 엮음. 『동남아 문화 이야기』. 서울: 솔과학: 198-229.

_____. 2017. “불사리장엄구의 문화적 양가성.” 『震檀學報』 129: 49-74.

_____. 2019. “미얀마의 불교적 제왕 전통과 불교 미술.”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238-251.

주경미·강민지. 2016. “미얀마 버강시대 로카테익판 사원 연구.” 『불교미

술사학』 21: 113-148.

천득염·염승훈. 2018. “미얀마 불탑의 기원과 형식 유래에 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7(2): 63-78.

한국문화재재단. 2018. 『파야똥주 사원벽화 - 황금의 나라 미얀마』. 서울: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청.

Archaeological Survey of Burma. 1919. *Epigraphia Birmanica: Being Lithic and Other Inscriptions of Burma Vol. I. Part 1*. Taw Sein Ko and Charles Duroiselle eds. Rangoon: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and Stationary, Union of Burma.

_____. 1920. *Epigraphia Birmanica: Being Lithic and Other Inscriptions of Burma Vol. I. Part 2*. Charles Duroiselle ed. Rangoon: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and Stationary, Union of Burma (Reprint 1960).

_____. 1921. *Epigraphia Birmanica: Being Lithic and Other Inscriptions of Burma Vol. II. Part. 1. - The Talaing Plaques on the Ananda*. Charles Duroiselle ed. Rangoon: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and Stationary, Union of Burma (Reprint 1961).

Cowell, E. B. 1897. *The Jātaka or Stories of the Buddha's Former Births. Vol. 3*.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_____. 1901. *The Jātaka or Stories of the Buddha's Former Births. Vol. 4.*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Duroiselle, Charles. 1915. “The Hlèdauk Pagoda and Its Relics.”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nnual Report 1911-1912*.

_____. 1917. “The Stone Sulptures in the Ananda Temple at Pagan.”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nnual Reports 1913-1914*.

- _____. 1937. *The Ānadhda Temple at Pagan*. Memoirs of 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No. 56. New Delh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 Ebert, Jorinde. 1994. "Niches, Columns, and Figures in Some Petroglyphic Stupa Depictions of the Karakorum Highway." *Artibus Asiae* 54(3-4): 68-295
- Fausboll, V. 1883. *The Jataka Together with Its Commentary Being Tales of the Anterior Births of Gotama Buddha* 3. London: Trübner & Co.
- _____. 1887. *The Jataka Together with Its Commentary Being Tales of the Anterior Births of Gotama Buddha* 4. London: Trübner & Co.
- Galloway, Charlotte. 2004. "Sculptural Depictions of Maya and the Nativity from Early Bagan - Origins and Change." *Myanmar Historical Commission Golden Jubilee Conference Proceedings, Part 2*. Yangon: Universities Historical Research Department: 155-163.
- Geiger, Wilhelm. trans. 1950. *The Mahavamsa or the Great Chronicle of Ceylon*. Colombo: The Ceylon Government Information Department.
- Horner, I. B. ed. 1975. *The Minor Anthologies of the Pali Canon. Vol. III: Buddhavamsa (Chronicle of Buddhas) and Cariyapitaka (Basket of Conduct)*. London: Pali Text Society.
- Kyaw Lat. 2010. *Art and Architecture of Bagan and Historical Background*. Yangon: Mahabandula Housing.
- Luce, G. H. 1966. "The Career of Htilaing Min (Kyanzittha): The Uniter of Burma, FL.A.D. 1084-1113."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o. 1/2: 53-69.
- Luce, Gordon H. 1970. *Old Burma - Early Pagán. Volume One Text*. Artibus Asiae Supplementum 25. New York: Artibus Asiae and the Institute of Fine Arts, New York University.
- Malalasekera, G. P. 1937. *Dictionary of Pāli Proper Names* 1. London:

- John Murray.
- Pe Maung Tin and Gordon H. Luce, trans. 1960. *The Glass Palace Chronicle of the Kings of Burma*. 2nd Printing. Rangoon: Rangoon University Press.
- Pichard, Pierre. 2001. *Inventory of Monuments at Pagan. Vol. 8. Monuments 2065-2834*. Paris: UNESCO.
- Poolsuwan, Samerchai. 2016. "The Iconography and Symbolism of the Pacceka Buddhas in the Art of Pagan." *Artibus Asiae* 76(1): 37-80.
- Stadtner, Donald M. 2011. "Demystifying Mists: The Case for the Mon." Patric McCormick, Mathias Jenny, and Chris Baker eds. *The Mon Over Two Millennia: Monuments, Manuscripts, Movements*.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25-59.
- _____. 2013. *Ancient Pagan: Buddhist Plain of Merit*. Bangkok: River Books.
- Stargardt, Janice. 1970. "Social and Religious Aspects of Royal Power in Medieval Burma: From Inscriptions of Kyansittha's Reign, 1084-1112."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13(3): 289-308.
- Strachan, Paul. 1996. *Pagan - Art & Architecture of Old Burma*. Second Edition. Oxford: Kiscadale.
- Thadani, N. V. 1934. *The Mystery of the Mahabharata. Vol. 4*. New Delhi: Bharat Publishing.
-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19. *BAGAN, Nomination Dossier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Paris: UNESCO.
- Thein Lwin & U Min Han. 2017. "Images of Brahma in the Buddhist Art of Bagan (circa 11-13th century)." *Bagan Metropolis Conference Paper*. Yangon and London: SOAS SAAAP. <https://www.soas.ac.uk/>

news/newsitem122992.html

Thein, Cherry. 2015. "Hidden Murals Revealed at Ananda." *Myanmar Times*. January 16. <http://www.mmtimes.com>

U Bo Kay. 2016. *80 Scenes of the Life of Buddha*. Yangon: Myanmar Heritage Publications.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Style of the Ananda Temple in Bagan, Myanmar

JOO Kyeongmi

Lectur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establishment and artistic style of the Ananda Temple,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important Buddhist temples in the Bagan region of Myanmar. The temple was built by the famous King Kyazitta for the eight Pacceca Buddhas visiting his palace from the Sacred Himalayan region. This temple's sculptural and architectural style is similar to the art of the Pala period in late Indian Buddhism. However, iconographic features of sculptures in the temple represent the eccentric cultural syncretism of Indian and Burmese contemporary Buddhist art, while also expressing original and traditional Burmese Theravada Buddhism. There are no available inscriptions on the exact construction of the Ananda Temple, but the historical story of the Glass Palace Chronicle and the traditional legend of the temple itself told that the background of the temple construction was Theravada Buddhism and Buddhist Kingship of King Kyazitta. However, according to its artistic style deeply related with Indian Pala Buddhist Art, it is likely to have been built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CE during the later period of King Kyanzitta. This is around the same time that King Kyanzitta sent Burmese monks to Eastern India in support of the Mahabodhi Temple at Bodhgaya and other important Buddhist monasteries for his Buddhist kingship.

Keywords: Bagan, Buddhist temple, King Kyanzitta, Buddha's Life Sculpture, Iconography

